

최태원 SK 회장 “조력자 리더십”

리더는 우수인재 양성하는 인물이어야 ... 천재적 리더는 부적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조력자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는 리더론을 펼쳐 주목되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7월28일 용인 SK아카데미에서 신입사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된 <회장과 대화의 시간>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자기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인물을 최고의 리더로 꼽았다.

최태원 회장은 “리더들은 나뭇의 색깔을 갖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카멜레온같이 색깔을 바꿔가면서 리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상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재적인 리더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독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형태의 리더십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훌륭한 CEO는 자기보다 뛰어난 후배들을 많이 육성해내는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좋은 리더십의 색깔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리더상을 목표로 삼아 정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만나본 인물 중에서 미국 GE 회장이었던 잭 웰치와 IBM을 위기에서 구해낸 루 거스너를 존경하는 리더로 들면서 실천력과 꾸준함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더가 되면 같은 질문에 대해 같은 답변을 반복해서 해야만 한다”면서 “일관성을 통해 상호 신뢰가 형성되며, 형성된 일관된 철학이나 시스템 등이 체화될 때 조직은 성숙해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06>